

Ⅲ. 지역경제일지 (4. 1 ~ 4. 30)

▷ 4. 4 인천시, ‘2016년 인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’ 발표

- 인천시는 올해 8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조 5천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. 시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을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정책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, 인천 8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 등으로 정함
- 인천시는 이밖에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 2단계 사업을 비롯해,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,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에서도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낸다는 방침을 천명

▷ 4. 4 인천시-인천항만공사,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공동 추진

-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(IPA)는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 공동시행 업무협약을 체결.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비는 인천시가 30%, IPA가 70%를 부담
- 자동차복합단지에는 신차와 중고차 입체보관시설, 자동차 부품 판매시설, 자동차 튜닝센터 등을 갖추기로 함

▷ 4.11 인천경제자유구역청, ‘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’ 착수

-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계획 수립 및 행정자치부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.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흩어져 있는 MICE 관련 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타 컨벤션 센터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-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천시 지역특화발전 사업으로 ICT(정보통신기술)를 활용해 송도컨벤시아를 주변 연관 사업과 융합하는 사업임

▷ 4.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수출기업 ‘인천지원단’ 구성

- 코트라 인천지원단은 중소·중견 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개소되었으며,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상생협력을 통해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
- 신규 수출 기업화 사업을 통해 인천내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들과 수출 전문위원을 멘토·멘티로 연결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수 확대에 기여하고,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침

▷ 4.14 국토부-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, 물류 새싹기업 육성지원 협력 협약 체결

- 물류 새싹기업(스타트업) 육성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 협약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 중인 물류 분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, 지원과제 발굴 및 스타트업간 교류 강화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며, 양 기관은 물류 새싹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물류산업에서 양질의 전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파트너 연계 지원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창업공간 지원 등을 함께 추진

▷ 4.18 신세계그룹, 송도국제도시에 도심형 복합쇼핑몰 건립

- 신세계그룹은 GIC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참여하는 해외자본(약2,000만 달러)을 포함한 총 5천억원을 투자해 백화점, 대형마트 등의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시설 관련 콘텐츠를 갖춘 도심형 복합쇼핑몰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
- 이번 개발사업은 지역 업체 참여 적극수용,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을 통해 3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

▷ 4.26 금융감독원, 인천지원 개원

- 인천지역 금융거래 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에 나설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이 남동구 구월동 한국씨티은행빌딩 19층에 개원. 금감원은 이번 인천지원 개원을 계기로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사전 자율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 관련 민원을 줄여 나갈 계획을 밝힘